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편입생의 입학 동기와 첫 학기 적응 실태 분석

서희정 연구위원

분석 개요

본 보고서는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1,3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입학 동기, 학업 적응 실태, 학습준비도를 분석하고, 연령, 성별, 최종학력, 소속 단과대학 등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를 종합적으로 탐색함. 이를 통해 신·편입생의 학습 동기 및 적응 과정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신·편입생의 진학 목적은 단순한 학위 취득에 국한되지 않으며, 취업·진로 전환, 지적 호기심 충족, 못다한 학업 성취 등 다양한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학사 이상의 응답자는 '지적호기심 충족'과 '직무 관련 역량 강화(취업·승진·창업)'를 주요 동기로 응답한 반면, 고졸 이하 응답자는 '취업'과 '학력향상(학위 취득)'을 주요 동기로 응답함

둘째, '학사일정 확인', '학습계획 수립', '등록·수강 절차 이해' 등 초기 학사 적응 영역에서 40대 응답자의 적응 수준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남. 또한 교육과학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타 단과대학 대비 유의하게 낮아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의 취약성이 확인됨

셋째,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관리 역량은 높아지는 반면, 디지털 활용 능력은 낮아지는 역전된 학습준비도 양상이 나타남. 이는 연령대별 강점이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세대 간 동료 학습(peer learning) 모델 적용의 가능성을 뒷받침함

정책적 시사점

성인학습자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획일적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40대 학습자의 학습계획 수립 및 학사행정 적응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맞춤형 상담과 일·학업 균형 코칭, 시간관리 워크숍 등

둘째, 교육과학대학 학생 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에듀테크 도구 활용 교육 등

셋째, 입학 초 학습진단 기반 AI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 최종학력 및 입학 동기를 고려한 개인화된 학업경로 설계 지원, 실시간 피드백 체계 구축

넷째, 세대 간 강점을 활용한 동료학습 생태계 조성 : 연령대별 학습 역량 기반의 멘토링, 세대 통합형 스터디그룹 구성 등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 한국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음. 특히 COVID-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원격교육의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학습자들이 직업 역량 개발(Upskilling) 및 재교육(Reskilling)을 목적으로 고등교육 체계에 유입되고 있는 추세임. 이는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모델을 넘어, 이질적 배경과 다양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함
- 본교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신·편입생은 30,332명¹⁾으로 전체 재학생(90,856명)의 약 33.4%를 차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에 속함. 이들의 성공적인 초기 적응과 학업 지속은 대학의 교육성과와 직결되지만, 성인학습자의 이질적 특성과 복합적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의 학습자 지원 정책 설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 본 연구는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의 입학 동기, 초기 적응 과정의 어려움, 학습준비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사 정책 및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1. 신·편입생의 입학동기는 집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첫 학기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은 무엇인가?
 3. 학습준비도 수준은 어떠하며, 집단 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4. 분석결과는 향후 학사 정책 수립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1.3 연구 방법

- 본 조사는 2025년 3월 한 달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전체로, 이 중 유효 응답자 수는 1,332명이었음. 자료 분석은 기술 통계,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및 사후검정(Scheffé)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모든 통계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9.0을 활용하여 분석함

1) 2025학년도 1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통계 기준

II. 분석 개요

2.1 응답자 특성

- 분석 대상인 신·편입생 1,33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음. 성별 분포는 여성 63.1%(840명)로 남성 36.9%(492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이는 성인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가 확대되는 최근 사회적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단과대학별로는 사회과학대학 소속이 39.9%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대학 31.2%, 인문과학대학 16.2%, 교육과학대학 12.7% 순으로 분포함
-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문학사 22.0%, 고졸 이하 16.4%, 대학원 졸업 이상이 16.4%로 뒤를 이음. 이러한 분포는 본교 신·편입생 집단이 학력과 연령 측면에서 이질적 특성을 지닌 비전형적 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²⁾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492	36.9
	여자	840	63.1
연령	10대	6	0.5
	20대	204	15.3
	30대	353	26.5
	40대	285	21.4
	50대	300	22.5
	60대 이상	184	13.8
	단과대학	인문과학대학	216
사회과학대학		531	39.9
자연과학대학		416	31.2
교육과학대학		169	12.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9	16.4
	전문대	293	22.0
	방송대	123	9.2
	사이버대	28	2.1
	4년제 대학	450	33.8
	대학원 이상	219	16.4
	전체	1332	100.0

2) 10대 응답자는 통계적 분석에 활용하기에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제외

2.2 조사 도구

○ 본 연구는 2025학년도 신·편입생 실태조사의 일부 문항을 활용하여 입학 동기, 학업 적응의 어려움, 학습준비도라는 세 가지 핵심 변인을 측정하였으며, 각 변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입학 동기:** 5개 영역의 범주형 문항으로 측정함. 하위 영역은 ①대학교육 동기, ②원격교육 기관 선택 이유, ③본교 선택 이유, ④학과 선택 요인, ⑤진학 방해 요인으로 구성됨
- **학업 적응의 어려움:** 입학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7개 문항으로 측정함. 각 문항은 ‘매우 어려움(1점)’에서 ‘매우 쉬움(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학습준비도:**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는 역량 수준을 5개 문항으로 측정함. 각 문항은 ‘매우 부족(1점)’에서 ‘매우 충분(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함

Ⅲ. 입학동기 및 진학 결정 요인 분석

3.1 대학교육 동기 : 전체 분포 및 특성

○ 신·편입생의 대학교육 동기를 분석한 결과, ‘취업·승진·창업에의 도움’이라는 도구적·실용적 동기가 42.7%(56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동시에, ‘지적 호기심 충족’이라는 내재적·학문적 동기 또한 31.8%(424명)로 나타나 성인학습자들의 입학 동기가 단일한 요인이 아닌 실용적 목적과 학문적 탐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성을 확인하였음(〈표 2〉 참조)

〈표 2〉 대학교육동기 전체 분포

동기 유형	빈도(명)	비율(%)
취직·승진·창업에의 도움	569	42.7
지적 호기심 충족	424	31.8
못다한 학업의 꿈	143	10.7
사회적 인정·자신감	69	5.2
사회적 관계 확장	69	5.2
상급학교 진학	58	4.4
전체	1,332	100.0

3.1.1 성별에 따른 대학교육 동기 차이

- 성별과 대학교육 동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음($\chi^2=43.986$, $p<.001$). 이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입학 동기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표 3>에서 각 동기 유형별 성비 분포를 살펴보면, 특히, ‘취직·승진·창업’ 동기를 선택한 응답자 중에는 여성이 72.8%로 남성 27.2%보다 월등히 많았음. 반면, ‘지적 호기심 충족’ 동기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45.3%로 타 동기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이는 남녀 학습자 간 입학 시점에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함

<표 3> 성별에 따른 대학교육동기 분포

(단위: 명/%)

대학교육 동기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취직·승진·창업에의 도움	210(27.2)	359(72.8)	569(100)	$\chi^2=43.986$ $p<.001$
지적 호기심 충족	156(45.3)	268(54.7)	424(100)	
사회적 관계 확장	26(50.7)	43(49.3)	69(100)	
못다한 학업의 꿈	53(40.6)	90(59.4)	143(100)	
사회적 인정·자신감	26(44.9)	43(55.1)	69(100)	
상급학교 진학	21(36.2)	37(63.8)	58(100)	

3.1.2 최종학력에 따른 대학교육 동기 차이

- 최종학력과 대학교육 동기 간에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연관성이 관찰되었음($\chi^2=379.092$, $p<.001$). 이는 학력 수준이라는 배경변인이 입학 동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
- 구체적으로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못다한 학업의 꿈 실현’을 선택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고졸 이하 학력자(52.4%)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상급학교 진학’은 전문대 졸업자(44.8%)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지적 호기심 충족’은 4년제 대학 졸업자(41.3%)가 ‘취업·승진·창업’ 동기에서도 4년제 대학 졸업자(36.9%)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성취한 학력 수준에 따라 대학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표 4〉 최종학력별 대학교육동기 분포³⁾

(단위: 명/%)

동기 유형	고졸이하	전문대	방송대	사이버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전체
취업·승진·창업 도움	94 (11.4)	125 (29.2)	53 (8.4)	12 (3.0)	192 (36.9)	94 (11.1)	569 (100.0)
지적 호기심 충족	70 (8.7)	93 (7.8)	39 (9.7)	9 (1.2)	143 (41.3)	70 (31.4)	424 (100.0)
못다한 학업의 꿈	24 (52.4)	31 (29.4)	13 (4.2)	3 (1.4)	48 (11.9)	24 (0.7)	143 (100.0)
사회적 인정·자신감	11 (34.8)	15 (21.7)	6 (13.0)	1 (1.4)	23 (18.8)	11 (10.1)	69 (100.0)
사회적 관계 확장	11 (15.9)	15 (15.9)	6 (21.7)	1 (1.4)	23 (24.6)	11 (20.3)	69 (100.0)
상급학교 진학	10 (12.1)	13 (44.8)	5 (6.9)	1 (3.4)	20 (31.0)	10 (1.7)	58 (100.0)
응답자 수(총)	219 (16.4)	293 (22.0)	123 (9.2)	28 (2.1)	450 (33.8)	219 (16.4)	1,332 (100)

 $(\chi^2=379.092, df=25, p<.001)$

3.2 원격교육기관 선택 이유

- 신·편입생이 고등교육의 형태로 원격교육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성’이 80.9%(1,077명)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반면, ‘학비 저렴’은 11.4%(152명)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는 성인학습자들에게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직장 및 가정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공간적 유연성이 원격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임을 나타냄(〈표 5〉 참조)

〈표 5〉 원격교육기관 선택 이유 분포

선택 이유	빈도(명)	비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1,077	80.8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	152	11.4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	39	2.9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서	32	2.4
일반대학보다 실용적인 교육과정	20	1.5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쉬울 것 같아서	12	0.9
합계	1,332	100.0

3) 인원이 적은 행은 해석에 주의를 요함

3.3 방송대 선택 이유

- 방송대를 선택한 핵심 요인으로 ‘저렴한 학비 부담’이 40.3%(537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반면, ‘높은 사회적 인지도(21.2%)’와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19.6%)’ 역시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였음. 이는 방송대가 성인학습자들에게 경제적 대안을 넘어, 교육적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표 6〉 참조)

〈표 6〉 방송대 선택 이유 분포

선택 이유	빈도(명)	비율(%)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537	40.3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283	21.2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261	19.6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180	13.5
다양한 인적(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서	30	2.3
학위나 학점 취득이 쉬울 것 같아서	27	2.0
출석수업(면대면 강의)이 있어서	14	1.1
합계	1,332	100.0

3.4 학과 선택 요인

- 학과 선택 과정에서는 실용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사업과의 관련성’이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공 지식 심화(22.4%)’, ‘자격증 취득(14.0%)’이 그 뒤를 이음. 이는 성인학습자들이 교양 함양이나 여가 목적보다는 직무 역량 강화와 경력 개발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전공을 탐색하고 있음을 보여줌(〈표 7〉 참조)

〈표 7〉 학과 선택 요인 분포

선택 요인	빈도(명)	비율(%)
현재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사업과 관련	542	40.7
관련된 전공 지식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298	22.4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	187	14.0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125	9.4
사회나 환경의 개선·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89	6.7
학과 동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47	3.5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어서	32	2.4
내 관심에 딱 맞는 전공이 없어서 차선택으로	12	0.9
합계	1,332	100.0

3.5 진학과정에서의 방해요인

- 신·편입생이 진학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큰 방해 요인은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35.5%)’로 확인되었음. 이는 일과 가정, 학업 등의 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성인 학습자의 현실적 제약을 반영함. 이어서 ‘수업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됨(21.0%)’과 ‘오프라인 활동(출석수업, 시험 등)에 대한 부담(14.6%)’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입학 초기 학습자들이 시간 관리의 어려움과 더불어 학업 수행 자체에 대한 높은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음을 시사함(〈표 8〉 참조)

〈표 8〉 진학방해 요인 분포

방해 요인	빈도(명)	비율(%)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	473	35.5
가르치는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280	21.0
오프라인 학사운영(출석수업, 시험 등)이 부담되었다	194	14.6
원격교육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153	11.5
졸업증이나 배울 내용이 내 삶에 도움이 될지 확실하지 않았다	79	5.9
일반대학과 다르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부담되었다	66	5.0
내 관심에 딱 맞는 전공을 찾기가 어려웠다	52	3.9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서 지지해 줄지 자신이 없었다	21	1.6
학비가 부담되었다	14	1.1
합계	1,332	100.0

IV. 학업 적응 과정에서의 주요 어려움 분석

4.1 전체 적응 수준 및 영역별 격차

- 신·편입생들 입학 초기 학업 적응 수준을 7개 영역에 걸쳐 분석한 결과, 영역 간 뚜렷한 격차가 관찰되었음(〈표 9〉 참조). ‘매체강의 수강(3.85점)’영역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아 디지털 강의 환경 자체에는 원활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학습계획 수립 및 학습(2.83점)’영역은 2.83점으로 가장 낮아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및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디지털 도구 활용이라는 기술적 측면에는 비교적 익숙하나,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시간을 관리하며 학습 과정을 통제하는 메타인지적 학습 전략(metacognitive learning strategy)에서는 준비도가 낮음을 의미함

〈표 9〉 학업 적응 어려움 영역별 분석 결과

영역	평균	표준편차
매체강의 수강	3.85	1.037
입시일정 이해	3.46	1.037
학과 정보 이해	3.38	1.041
학사용어 이해	3.29	1.180
합격 후 절차 이해 (수강신청, 등록)	3.18	1.096
학사일정 확인	3.05	1.185
학습계획 수립/학습	2.83	1.101

*5점 척도 (1=매우어려움, 5=매우쉬움)

4.2 성별에 따른 적응 차이

- 학업 적응의 어려움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2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음(〈표 10〉 참조). ‘**학습계획 수립 및 학습**’(t=2.881, p=.004)과 ‘**합격 후 절차 이해**’(t=3.189, p=.001)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 해당 영역에서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성별에 따른 적응 차이 분석⁴⁾

영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
학습계획 수립 및 학습	남	2.95	1.129	2.881	.004
	여	2.77	1.080		
합격 후 절차 이해 (수강신청·등록 등)	남	3.30	1.098	3.189	.001
	여	3.11	1.089		

4.3 연령대별 적응 양상: 40대 학습자의 취약성

- 연령대별 학업 적응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일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학습자** 집단의 취약성이 두드러짐(〈표 11〉 참조). 40대 학습자는 ‘**학습계획 수립 및 학습**’(2.56점), ‘**합격 후 절차 이해(수강신청, 등록 등)**’(2.95점), ‘**학사일정 확인**’(2.86점)등 총 3개 영역에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기록함. 이러한 결과는 40대 집단이 학업 초기 적응 과정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함

4) 본 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만을 제시함

〈표 11〉 연령대별 적응 차이 분석⁵⁾

영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F	p
학습계획수립 및 학습	3.11	2.87	2.56	2.80	2.91	6.360	.001
합격 후 절차	3.49	3.21	2.95	3.15	3.20	6.002	.001
학사일정 확인	3.25	3.01	2.86	3.12	3.07	3.124	.008

4.4 단과대학별 차이

- 단과대학별 적응 수준에서는 ‘학과 정보 이해’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음($F=2.664$, $p=.047$). 사후분석 결과, 인문과학대학이 3.54점으로 가장 높은 적응 수준을 보였으며, 교육과학대학은 3.3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표 12〉 참조)

〈표 12〉 단과대학별 적응 차이 분석⁶⁾

단과대학	평균	표준편차	F	p
인문과학대학	3.54	.997	2.664	.047
사회과학대학	3.39	1.008		
자연과학대학	3.31	1.094		
교육과학대학	3.30	1.044		

V. 학습준비도 분석

5.1 학습준비도 영역별 격차 분석

- 학습자들의 학습준비도 설문결과를 5개 영역별로 분석 결과,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평균 3.9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시간관리 능력’과 ‘글쓰기 능력’은 각각 3.2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표 13〉 참조). 이는 신·편입생들이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원격교육 환경에서 학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조절학습 역량(self-regulated learning skills)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학업을 시작함을 시사함

5) 본 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만을 제시함

6) 위와 동일함

〈표 13〉 학습준비도 영역별 기술통계

영역	평균	표준편차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	3.94	.948
교재이해능력	3.63	.888
동료와 협력능력	3.30	.990
글쓰기능력	3.23	1.092
시간관리능력	3.23	.982

*주: 5점 척도 (1=매우 부족, 5=매우 충분)

5.2 성별에 따른 학습준비도 차이

- 성별에 따른 학습준비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글쓰기 능력’과 ‘시간관리 능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표 14〉 참조). 이 결과는 특정 학습 역량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실제 성인학습자의 역량 발현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⁷⁾

〈표 14〉 성별에 따른 학습준비도 차이⁸⁾

영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
글쓰기능력	남	3.36	1.095	3.117	.001
	여	3.16	1.084		
시간관리능력	남	3.34	.970	3.136	.001
	여	3.16	.984		

5.3 연령대별 학습준비도의 상호보완적 특성

- 연령대별 학습준비도는 역량에 따라 뚜렷한 패턴 차이를 보임.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은 20대(4.40점)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상(3.39점)에서 가장 낮아 연령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 반면, ‘시간관리 능력’은 60대 이상(3.45점)에서 가장 높고, 30대(3.10점)에서 가장 낮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냄(〈표 15〉 참조). 이는 연령대별로 강점을 가진 역량이 상이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함

7) 다만, 효과크기(Cohen's d)가 작은 수준이므로 확대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8) 본 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만을 제시함

〈표 15〉 연령대별 컴퓨터 활용 능력과 시간관리 능력

연령대	컴퓨터 활용능력				시간관리 능력			
	평균	표준편차	F	p	평균	표준편차	F	p
20대	4.40	0.778	44.451	.000	3.14	1.055	5.475	.000
30대	4.27	0.775			3.10	1.030		
40대	3.93	0.867			3.15	0.966		
50대	3.60	0.947			3.38	0.875		
60대 이상	3.39	1.050			3.45	0.916		

5.4 단과대학별 학습준비도 차이: 교육과학대학

- 단과대학별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F=7.581$, $p<.001$). 자연과학대학이 4.07점으로 가장 높은 역량을 보인 반면, 교육과학대학은 3.67점으로 4개 단과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표 16〉 참조)

〈표 16〉 단과대학별 컴퓨터 활용능력

단과대학	평균	표준편차	F	p
자연과학대학	4.07	0.959	7.581	.000
인문과학대학	3.96	0.934		
사회과학대학	3.92	0.925		
교육과학대학	3.67	0.956		

VI. 종합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6.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2025학년도 신·편입생의 입학 동기와 초기 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자 지원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학습자들의 입학 동기는 학력 수준에 따라 학업의 꿈 실현, 상급학교 진학, 지적 호기심 탐구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었음. 둘째, 학업 적응 과정에서는 40대 학습자가 학습계획 수립 등 자기주도적 학습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집단으로 나타났음. 셋째, 학습준비도 측면에서는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은 양호했으나 시간관리, 글쓰기와 같

은 전통적 학습 기술이 부족했으며, 특히 교육과학대학 소속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이러한 결과는 신·편입생이 다양한 하위 그룹으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임을 보여주며,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화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6.2 주요 결과에 대한 심층 논의

- 40대 학습자가 시간 관리 및 학습계획 수립 전략, 학사 행정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이들이 직장에서 중간관리자, 가정에서 자녀 양육자, 부모 부양자로서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됨. 학업에 투입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학사 안내보다 훨씬 세심하고 선제적인 학습 코칭 혹은 튜터의 지도가 필요함
- 대체로 예비교원 및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학대학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이 타 단과대학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AI 디지털교과서 및 에듀테크 도입 등 급변하는 교육 현장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공 지식 교육을 넘어 디지털 교수역량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 젊은 세대는 디지털 활용 능력, 중장년 세대는 시간관리 능력에 강점을 보이는 상호보완적 구조는 세대 간 동료학습(peer learning) 도입의 가능성을 시사함. 학습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학습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역량 향상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은 높지만,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학습자에게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도구를 활용하여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learning how to learn)’을 가르치는 메타인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6.3 정책 제언 : 단계별 로드맵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편입생의 성공적인 학업 적응과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정 과제를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구분	핵심 과제	주요 실행 방안
단기 (1~3개월)	핵심 취약 집단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대 학습자 : 전담 상담사 연계, 시간관리 워크숍 운영, 일·학업 균형 코칭 교육과학대학 : 신입생 대상 디지털리터러시 및 에듀테크 활용 집중 교육
	집단 특성 기반 오리엔테이션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별 맞춤형 지원 : 기초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계(고졸 이하), 학위 연계를 위한 체계적 학사 로드맵 제공(전문학사 이상),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대학원 이상)
중기 (6개월 ~1년)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도입 : 입학 초 종합 진단을 통한 개인별 학습 경로, 실시간 학습 분석 및 피드백 제공 세대 간 상호학습 프로그램 운영 : 역량 기반 멘토-멘티 매칭, 세대 통합 스터디 지원
	교육과정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체 연계 실무 중심 교육과정 확대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공 기반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강화
장기 (1~3년)	평생학습 기반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듈형·마이크로디그리(Micro-credential) 중심 교육과정으로 점진적 전환 학습 경험 인정을 위한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 도입
	지역사회 연계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업,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IFDE 통계분석보고 2025-제2호

신·편입생의 입학 동기와 첫 학기 적응 실태 분석

2025년 8월 31일 발행	작 성 자 :	서 희 정
	발 행 자 :	고 성 환
	발 행 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 (02) 3668-4474

<비매품>